未決監에 二百五十名 積滯된 思想犯公判

재판관의 부족으로 각사건은 지체 / 한번도 공판못해본 사건이 대부분 / 件數로 만 十七件

근래 격증하야 가는 조선의 정치적 사상범(思想犯)은 날마다 더하여 가는 형세로 각지방경찰서 검사국 예심정(豫審廷)에 계속(繫屬)된 사건은 말할수도 업거니와 예심이 종결되여 공판에 회부된 것을 경성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만 보드라도 건수로 십칠건 인수로 이백사십이명이며 동형사(刑事)부에는 사긔와 강절도의 몃사건을 제하고는 대부분이 치안유지법 보안법 제령제칠호(制令第七號) 출판법(出版法)등의 위반사건이라는데 재판관은 부족하야 공판기일이 지정된 것은 불과 수건이오 그외 공판기일 미정으로 잇는중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갓다

張弘相外十九人 (治維違反)
崔昌楫外一人 (同上)
韓林 (同上)
申用雨外十二人 (出版、保安法違反)
金復鎭外十九人 (治維違反)
韋獻貞外廿五人 (治、保、出)
韓相鎬外四十五人 (治維違反)
姜永錫 (同上)
金淳英 (同上)
尹貞源外二十二人 (同上)
金鎔山外四十八人 (同上)
洪承希外十一人 (同上)
許憲外五人 (制令違反)
金漢龍 (制令、治維)
(以上京城地方法院)
宋彦弼外一人 (治維違反)
黃泰成外十四人 (治、保、出)
韓孟譽外四人 (保安法)
(以上京城覆審法院)

鐵窓에서 幾星霜 嚴冬도 臨迫!

가을도 지나가는 이때에 被告親知等愁慮

이상 제사건중에서 장홍상(張弘相)외 십구인에 대한 제이회공판과 최창식(崔昌楫) 한림(韓林)에 대한 언도(言渡)는 이십구일에 학생동맹당사건의 신용우(申用雨)외 십이인에 대한 공판은 오는 삼십일일에 김복진(金復鎭)외 십구인에 대한 공판은 십일월십칠일부터 삼일간에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복심에 계속된 것이 지정된 외에는 모다 가공판기일도 아즉 미정중이며 압흐로도 아즉 막연함으로 몃해와 몃달을 두고 미결에서 신음하는 피고들의 괴로움은 물론 가을도 이미 지나고 일긔는 점점 치워 서대문형무소 철창에 겨울이 박두한 이때에 자제와 동지를 옥중에 둔 그들의 부형과 친지들의 수심은 형언할수 업는 터이라 한다

四次共青事件 明日續行公判

명일에 제이회공판속행 張弘相以下十九人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제사차간부계(第四次幹部系)의 공산청년회의 장홍상(張弘相)외 십구인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제일회공판은 지난 이십사일 경성지방법원 제사호법정에서 금천(金川)재판장 주심과 사상전문 삼포(森浦)검사의 립회와 변호사 김병로(金炳魯)외 제씨의 렬석하에 방청금지로 개정되여 당일에는 주범 장홍상만 심리를 마치든바 명이십구일에 다시 공판을 계속하고 남어지 십구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리라 한다

◇가을도 다 가는 때—(금일 경원한어서)

吉林省扶餘에도 農民의 離散

량민체포코 금전강요 農民恐怖時代出現

지난번 중국간도 대사변으로 인하야 길림성돈화현(吉林省敦化縣)부근의 조선농민이 참혹한 학대를 밧고 리산된다함은 루루보도한바어니와 『할빈』과 장춘사이에 잇는 길림성 부여현(扶餘縣)부근에 잇는 수백호의 조선농민도 지난달 이십구일경부터 비상한 공포중에 잇서 청년자제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농작물은 그들이 빼아서 감으로 리산하지 안흐면 안될 비참한 경우를 당하엿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순경들이 비법한 행동으로 조선동포를 압박하는 일례를 들면

지난구월 이십일밤 중국순경 칠팔명이 부여현 삼가자(三家子)에 낫타나 입적수속(入籍手續)을 안하엿다고 속히 어동민을 소집한후 김수성(金守成) 반동선(潘東鮮)이란 두청년을 체포하얏는데 그청년들의 가택을 수색하야 비라 몃장이 잇는것을 공산당에 가입한 증거라 하고 잡어갓스며 또 그날밤도 되조란 곳에서 리경일(李京一)이란 청년을 아모죄도 업시 체포하야 갓고 누구를 지명하야 그사람이 업다하면 곳 농작물을 차압하며 긔위체포된 사람에게는 이천원으로 일천오백원을 주면 방면한다고 위협하다가 종내 돈을 내지못하면 현감옥(縣監獄)으로 보내이고 또 그지명한 사람이 업스면 그가족을 대신으로 잡어가는 일이 만허 그곳 동포는 실로 전전긍긍하는 상태라 하며 그중국순경중에는 조선사람이 석겨 잇서 자긔동포를 더욱 해롭게 하는자가 만타고 한다

朝鮮物産獎勵 常務理事會

조선물산장려회에서는 지난 이십사일 오후다섯시 동회관내에서 상무리사회를 열고 다음과 가튼사항을 결의한후 오후여덜시 산회하얏다 한다

一、事務上形便에 依하야 宣傳部常務理事一人을 增選하기로 決議하야 金容離氏가 被選된바 此는 次回理事會의 承諾을 求할事

一、會館建築에 關하야는 第五十三回常務理事會에서 決定한 即實部保證金은 起工前에 此를 收入하고 第五十四回常務理事會에서 決定한 京城市內實業家有志諸氏의 會合은 起工後에 此를 行할일

一、新建築會館內에 設置할 朝鮮物産陳列館規定의 起抄委員으로 白泓均、柳光烈 兩氏를 選擧할일

巷間販賣하는 電球 使用하면 告發

전긔도용으로 고발한다고 一般家庭의 注意事

최근 경성전긔회사에서는 각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구(電球)를 조사한결과 경성전긔회사 소정의 전구를 사용치안코 각종의 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만흔데 이는 촉광이 경전회사의 전구보다 만흠으로 전긔도용(電氣盜用)이 된다고 한다 이와가티 위반되는 수효는 경성시내 정액등(定額燈) 십삼만등에 대하야 약칠할을 점령한다는바 이들은 한번경고를 한후 일향듯지안흐면 전긔도용으로 고발을 하리라고 한다

府內二十八個 私立校長會議

사립학교에 대하야 지도감독을 더욱 밀접히 할 필요가 잇다는 의론이 총독부방면으로부터 대두되어 시학관(視學官)을 증원하는 일편 현재의 시학관 시학으로 하야금 각사립학교를 순찰케하는데 경성부학무과에서는 좌촌부시학(佐村府視學)이 그동안 부내각사립학교 시찰을 하든바 지난이십오일까지 끗을 마치고 이십팔일 오후한시부터는 경성부내 이십팔개소의 사립학교 교장회를 소집하야 교장회를 개최하고 사립학교일체 사항에 관한 협의와 지시를 하엿다 한다

天道布德講演

천도교회에서는 오는 십일월일일은 천도교포덕긔렴일(天道敎布德紀念日)임으로 대선전을 하는중인데 경운동에 잇는 천도교 경성부(京城部)에서도 당일오전팔시부터는 당원이 총출동하야 선전『삐라』십만매를 경성시내에 배부하고 동일밤칠시에는 본교당안에서 긔렴식을 성대히 거행할터이며 오후칠시반에는 포덕선전 대강연회를 개최한다는데 연사는 아래와 갓다더라

李鍾麟 李敦化 姜定煥

列車內에 潜入하야 四萬圓窃取未遂

피의자는 사실전부부인 警察部서 嚴重取調中

경긔도 경찰부에서는 얼마전에 구경찰서로부터 리대정(李大鼎)이란 사람을 방금엄중취조를 행하는 중이라는데 그사건의 내용을 탐한바에 의하면 전긔리대정의 일파 오륙명이 서로 공모를 한후 렬차 화물계원(荷物係員)을 매수하야 가지고 하물차안에 잇는 귀중품상자(貴重品箱子)의 열쇠를 맨들어가진후 긔회를 기다리든바 지난달중순경 목포식산은행지점(木浦殖産銀行支店)으로 현금사만원을 경성으로 보내는것을 탐지하고 대전(大田)서 하물차에 잠입하야 그돈을 도적하고저 하얏스나 그열쇠가 맛지아니하야 목적을 달치못하엿다는 사실이 발각된것이라는바 리대정은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그러자는 모다 도망하얏슴으로 확실한 증거는 잡을수가 업스나 때마츰 이만원 도난사건도 닐어난뒤임으로 엄중취조를 계속하는중이라 한다

파면하고 요구조건의 승인을 원하엿스나 한가지 조건도 승인치안허 지난이십칠일에는 제이학년생(第二學年生) 朴明秀 李勝涛 두명에게 퇴학(退學)과 李亨根 朱應洙 金三伊 吳春泳 등사명에게는 무긔정학(無期停學) 그외 전학년생에게는 오일간근신을 명하엿스나 (第一學年B組)일동도 가담하야 이학년생 요구조건외에 한가지를 더첨부하야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하엿슴으로 학교에서는 세명퇴학과 전부에게 무긔정학을 명하엿스며 일학년A조(第一學年A組)도 형세불온하야 할수업시 림시휴교를 명하엿다는바 갈수록 학교당국의 태도는 엄벌주의로 나감으로 해결될 여망은 보이지안흐며 학생측은 진영을 공고히하고 잇는일방 학교당국에서는 완강한 태도를 취함으로 점점 험악한 상태에 이르른다고 한다

早大臨時休校 要求全部拒絶

【東京電】 조도전대학(早稻田大學) 동맹휴학에 대하야는 이미 보도하얏거니와 학생측의 요구에 대하야 리사회(理事會)와 교수회(敎授會)의 결의는 이십륙일 오후다섯시에 발표되엿는데 이십칠일부터 십일월 오일까지 림시휴업을 하는 동시에 학생측의 요구조건인 다섯가지 사항은 전부 거절하기로 하엿다 한다

一次共黨李峻泰 四年服役코 出獄

제일차공산당(第一次共産黨)사건에 관련하야 만사년반 동안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잇든 리준태(李峻泰)씨는 이십팔일오전열한시경에 만긔출옥하야 방금시내인사동(仁寺洞) 락세려관(樂世旅館)에 투숙중인데 불일간 안동(安東) 그향제로 나려가리라 한다

警察이 자는 사이에 窃盜犯이 絶縛脫走

촌민이 잡아준 절도를 노처 犯人의 蹤跡은 杳然

【泗川】 지난십오일밤열두시경에 사천군읍남면신복리(泗川郡邑南面新復里) 오리달(吳利達)의 집에는 나이가 사십여세쯤 되여보이는 절도가 침입하엿든바 주인이 되는 오리달은 마츰잠이 들지안햇슴으로 뛰어나가 전긔절도를 붓잡고 『도적이야』 소리를 지르니 소리에 놀낸 동리사람이 모혀들어 범인을 잡어가지고 그중에 장정다섯사람이 즉시 선진주재소(船津駐在所)로 송치하야 맛겻다는데 그때가 밤이엇슴으로 조선인순사는 한사람도 업고 동소에 잇는 정구(井口)라는 일순사가 범인을 마다서 유치장이 업슴으로 범인의 팔목에다 장울쇠만 채워가지고 포승에 묵거서 기동못(釘)에다가 달아두고 정구순사는 다시 침실로 들어가 잠이 든 찰라에 범인은 그만 포승을 풀어버리고 탈주하여 바렷다는바 이소식을 들은 사천경찰서 산하서장(山下署長)과 경부가 전긔주재소까지 출장하엿다하며 형사대가 출동하야 각면각촌으로 대수색을 개시하엿스나 범인의 종적은 상금묘연하다는데 촌민이 잡어다 맛겨준 절도범을 경찰의 부주의로 탈주케 하엿다하야 일반주민의 여론이 비등하다고 한다

不承認한 廿三個店 罷業工은 持久戰

파업단은 주야로 작전계획에 분망 / 문제는 압흐로 해결될 서망이 업서 / 平壤洋靴工爭議續報

【平壤】 임금인하에서 발단한 평양양화직공(平壤洋靴職工)의 총동맹파업은 날이갈수록 점점 그사태가 험악하여지는데 방금 직공측의 요구조건을 완전히 승인한 십오개양화점과 단독경영의 오개양화점 외의 이십삼개소의 양화직공은 주야로 부내계리(府內鷄里)에 잇는 파업단 본부에 모혀서 작전계획을 계속하고 잇다는데 지금의 형세로 보아서는 문제가 용이히 해결될것 갓지안타하며 파업단에서는 어데까지지 구권을 계속하기위하야 매일가티 파업단원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파업단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잇다고 한다

中央執委會가 全體大會를 代行

집행위원회에서 결의 新幹本部의 臨時規定

시내종로 이정목에 잇는 신간회(新幹會) 본부에서는 지난이십오일 오후 회관내에서 김병로(金炳魯)씨사회로서 제십오회중앙상무집행위원회(中央常務執行委員會)를 열고 각부경과보고와 리극로(李克魯)씨 재만동포위문조사보고를 접수한후 다음과 가튼사항을 결의하얏다 한다

一、入會承認의 件
申奇興氏外四氏의 入會를 承認함

一、中央執行委員會召集에 關한 件
本部第三回中央執行委員會는 來十一月九日午前十時부터 本部會館에서 開催키로 함

一、全體大會에 關한 件
全體大會及全體大會에 準한 大會는 警察當局이 一切禁止함으로 左와 如히 臨時規定을 制定하고 支會半數以上의 承認을 得하야 第三回中央執行委員會에서 大會를 代行키로 함 但 來八日까지 何等의 反對回信이 無한 支會는 同意한 것으로 認함

◇臨時規定
規約第十條의 期限이 經過하여도 全體大會를 召集키 不能한 狀態에 在할 時는 中央執行委員會는 全體大會의 權利를 代行함을 得함
本規程은 次期全體大會의 承認을 得할 時는 中央委員會의 權利代行한 時에 遡及하야 其效力을 生함

兄弟싸움에 拳銃을 發覺

권총과 실탄을 압수하고 端川署嚴重取調

【端川】 단천읍내문리(端川邑內門里) 고원균씨(高元均)씨의 집에는 지난이십오일석양에 돌연히 당지 경찰서에서 정사복 사오명이 출장하여 주인을 붓들고 『피스톨』을 내여노흐라고 함으로 할수업시 내여주엇다는데 경관들은 실탄몃발과 단포를 압수한후 그집을 샅샅이 수색하다가 즉시 잡어다가 방금 문초중이라는바 그날 경찰이 전긔 고원균씨 가택을 수색하고 단포를 내라고 함은 가사에 지이를 원인에 대하야 고원균씨 장자 고종률(高鍾律)씨의 말에 의하면 원균씨는 원래다소의 재산을 갓고 잇든바 근래 사업에 실패하여 매우 곤궁한 형편에 잇슴을 불구하고 고씨의 제형균(高亨均)이 년년히 자긔생활을 그형에게 의뢰하여 오든바 금년에도 생활을 돌보아달라고 하다가 불응하엿다고 수일을 계속하여 싸워오다가 필경에는 경관을 보고 전긔권총의 소지를 밀고한 까닭이라고 한다

色魔西洋人을 걸어 母女의 貞操代 萬圓請求

자긔와 살든 서양인이 자긔의 딸의 정조를 유린하얏다고 위자료청구 / 平壤地方法院에 提訴

【平壤】 진남포 비석리(鎭南浦碑石里)에 사는 박보비(朴寶妣)라는 녀자는 평양지방법원에 모서양인을 걸어서 정조를 유린하얏다고 위자료일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엿다는데 이제 그자세한 내용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전긔박보비는 모서양인이 독신으로 잇슴을 기화로 동거하야 자식까지 낫케된데도 불구하고 전긔서양인은 박보비의 사별한 남편의 딸 일녀(一女)(二〇)를 감언리설로 꾀여서 정조를 유린하얏슴으로 박보비는 이에 분개하야 서양인에게 그 비도덕함을 라매하고 한달에 삼십오원식 생활비를 밧고 분리하여 살든바 최근에 와서는 생활비도 지급치 안흘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어떤일본녀자와 동거하기 때문에 그와가티 고소를 제긔한것이라고 한다

松都高普校 二年生盟休斷行

팔십명이 진정서제출코 敎員排斥外二件

개성에 잇는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 제이학년생 팔십여명은 지난이십칠일 아홉시경에 학교당국에 모간부와 좌등선생(佐藤先生)배척외 교수완비등조건을 들어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고 동맹휴학(同盟休學)을 단행하엿다는바 이십팔일에는 등교하야 요구조건의 승인여하를 알려이라 하며 상급학년에도 파급될 형세가 농후하다고 한다

開城學堂 一年生마저盟休 去益險惡

개성학당상업학교(開城學堂商業學校) 이학년생 일동은 지난이 [illegible]

中央高普學生 一部依然盟休

一五學年만授業

이십칠일등교일(登校日)에 일학년오학년은 전부 등교하엿스나 맹휴(盟休)를 개시한 이삼사학년의 출석률은 매우령성하야 도저히 수업을 시작할수 업슴으로 부득이 학교당국에서는 이삼사각학년에 한하야만 이십팔일부터 래월십오일까지 림시휴학(臨時休學)을 하기로 하엿다고 한다 이즉히 학교당국에서는 이십칠일까지 등교하지 안는 생도는 단연처분한다고 선언한일이 잇스나 이십팔일에 림시휴학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에대하야 다시 맹휴생들의 학부형들에게 각각 래월 십삼일 십사일 양일동안에 그책임잇는 생도를 대동하고 래교하라고 [illegible]

大規模魔藥密輸團 共犯逮捕에 奔走

일본조선만주 각지에 수배코 東大門署眼鼻莫開

긔보한바와 가티 동대문서 고등계(東大門高等係)에서는 일본만주조선(日本滿洲朝鮮)에 마수를 버리고 잇던 대규모의 『모히』밀매단(密賣團)의 검거에 착수하야 그주범 권태학(權泰鶴) 정지화(鄭志和)등을 체포하엿스며 시내각처에서 일본인 조선인 밀매자 십칠명을 더 검거하는 동시에 『모히』『헤로인』『코카인』등 현품과 주사긔구(注射器具)기타 전후 이천오백원어치의 증거품을 압수하엿슬뿐 아니라 각지에 수배하야 그공범 련루자들을 계속 수사중이라는바 대판(大阪) 평정시장(平井市藏)은 만주(滿州)방면에 탈주하야 그곳에서 또다시 그일미와 밀수를 계획한다는 정보가 잇서서 목하 안동(安東) 봉천(奉天)등지에 수배하야 그체포에 사력을 다하고 잇다는데 그동안 부산수상서(釜山水上署)의 수배로 본정서(本町署)에서 인치되엿든 전긔권태학(權泰鶴)의 일미 신영구(申永求)(二〇) 리성우(李聖宇)(二二)의 량명은 『모히』『코카인』『헤로인』등 다섯포대 일천칠백『몬드』의 현품과 함께 이십칠일아침에 이번사건의 수사본부로 정하여진 동대문서(東大門署)로 이송하엿슴으로 목하 동서에서는 엄중히 취조를 진행중인데 압흐로 검거에 따라서 범위는 더욱 확대될것 갓다하며 이때문에 동대문서에서는 안비막개의 활동상태이라 한다

清津府廳放火犯 公判再開는 延期

오는십일월륙일에 판결 京城覆審法院에서

청진부청방화사건(清津府廳放火事件)으로 세상을 놀나게한 산전(山田) 김동수(金東洙) 두사람은 원심에서 십이년의 징역을 밧고 복심법원에 회부되여 제일회공판에서 류원(柳原)검사로부터 전긔두사람에 사형을 구형하야 이십칠일 언도법정으로 세인의 주목을 모앗든데 말광(末廣)재판장으로부터 동사건은 증인심문과 증거조사를 더할 필요가 잇다하야 오는십일월륙일에 공판을 다시 속행하기로 결정하엿다 한다

己妻를 刺殺

성품이 본래 조치못하야 술먹으면 늘 다투든 끗테

【馬山】 지난이십일오전령시반경에 마산원정(元町) 일백이십이번지에서 주류판매업(酒類販賣業)을 하는 리진수(李進守)(四〇)란자가 자긔의 처되는 서점순(徐點順)(三二)을 식도로 복부를 찔러 하로밤사이에 절명케되엿다는데 이제 그내용을 들은즉 전긔리진수는 평소부터 성질이 고약하야 주색에 방탕하며 언제나 생활난으로 인하야 부부사이에 싸홈이 일어나게 되든바 그날밤에도 술을 먹고 자긔집으로 돌아오자 처되는 서점순이와 이러니 말다툼을 하야 한참동안 분란을 일으키다가 성질이 조치못한 진수는 분함을 이기지못하야 엽헤 잇든 식도를 가지고 점순의 복부를 무참히 찔러 선혈(鮮血)이 림리하게 되자 이것을 발견한 마산경찰서 사법계 김형사가 즉시 행정(幸町)에 잇는 대곡병원에 동지하야 응급치료를 하든중 지난이십이일 오후아홉시에 절명되엿는데 범인리진수는 즉시 마산검사국으로 압송되여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밧는중이라고 한다

트셋판

▲경성전긔회사에서는 자긔회사에서 맨든 전구를 쓰지안코 각지회사에서 맨든 전구를 쓰는 가정이 만흔것을 불만히 녀기든지 ▲이것은 전긔도용으로 고발할 방침을 세웟다 한다 ▲경전으로서 생각이 잇거든 번화가에서 갓다노코 파는 전구갑만큼 경전의 전구갑도 싸게하고서 이런방침을 세우도록 하는것이 엇더하고?

미친체하고 强盜하든犯人

장군이에워싸고잡아서 常習的의佯狂犯行

【全州】 지난이십삼일오후일곱시경에 전주군이동면 금후리(全州郡伊東面錦後里)전주진안간(全州鎭安間)일등도로인속칭『쉬냥당이고개』에 강도한명이나타나서 마츰지나가든 소장사(牛商)인 동군소양면죽절리(全州郡所陽面竹節里) 림남수(林南洙)외두사람을 잡어가지고만일소리를 지르면 권총(拳銃)으로쏘와 죽인다고위협한후 몸을뒤지어서 현금 이십원사십전을강탈하야 가지고 도망하려할즈음에 피해자들이일제히 사람살리라고 소래를놉히어 마츰그날이전주장날이엇슴으로 장에서도라가든 사람이 삽시간에수십명이모혀 가지고강도를 에워싸고 도망하지못하게한후 경찰서에전화를 걸엇슴으로 이급보를바든 전주경찰서(全州警察署)에서는 다수한경관대가 출동하야 현장에서 포박하얏는데범인은 전주청수정(全州淸水町)전경부(前警部) 리창우(李昌雨)의장남 리상렬(李相烈)(二三)이란자로 오래전부터 다소의정신이상이잇서서 미친체하고 이런짓을 각금하는자이라는데 지난번완산정(完山町)정석모(鄭碩謨)씨집을 습격한강도사건도저의소위라고 자백하얏다 하며그외에 여죄가만흔 모양으로목하엄중취조중이라한다

新茅柳林問題

면장이도벌하는것을 住民들이制止식혀

【安邊】 함남안변군신모면장 김병수(安邊郡新茅面長金炳洙)는요지간에동면수랑리평에잇는모치유림(茅峙柳田林)오륙십만평 유토권담과 이삼백호의촌락방수제방림과 거사오백년을나려오면서 엄검하든거긔서 소위소송비용 보충이라는 미명으로재벌인가도업시삼사십년근이상의 송림전부를 도벌하다가지난이십이일주민대표가군수리선호씨을 방문코 질문이잇슨후이십삼일군수의명령으로군직원이돌연 현장에가 재벌육중지식혓다고하는때 이제 전후사실을탐문하여보면 개인박모와 동유재산관리자면장 김병수 급주민대표다수간에전긔모유치유권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생겨절국면유로 편입득송하엿는때 당시소송 비용지불방법을 주민들에게밧지못하고그송목을 비여지불하기로결정되어 그러하엿다는바그곳모차사동주민들은엇던소송비용이그리만코 무슨 재판소방칭게교제비니 무슨국수갑 떡갑이니하고 밤낫으로 내라고하다못하야(호세등급에의하야 밧은돈이잇슴에도불구코)그귀중한제방수목을 비여파라 먹을라고하니 차라리우리의생명을 잘러가는것이 아닌가요 그리재안허도 수림이러지고 제방이유실되면서 토지가옥인 명재산의손해가 의외로막대히되엿거든 또는군과 도당국에서는 실지측량까지하고 륙만원의거액으로 방수제방설계까지 확립되이차관에 이것을한부로비는 면장은참으로 용서할수업다고 분개한다

百七十餘學父兄에게 授業料催告狀發付

이것도미가폭락의영향 華川郡當局의處斷

【華川】 재귀는발호하고곡가는폭락되어 이중고통을 당하는농촌경제의 참상은 일일히매거키어려운바라하겟거니와미가폭락으로 물정이소연한 요지음강원도화천군청(華川郡廳)에서는체납된 수업료(滯納授業料)를징수코자 학무형 일백칠십팔명에게최고장(催告狀)을발부하엿다는때 긔일에 납부치아니하면체납처분을하야 체납수수료를가징(加徵)하리라는바 수입료를납부할 칭의가업는니보다 각종세금기라로 쏘들리는 오늘날일푼이나마파출할회책이업다는바살인적경제공황한이때에그가려최고장을 밧부항은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고통을품이라고일반은말한다

慶北을橫行튼 大窃盜被捉

大邱署取調中

【大邱】 본적을영천군자양면신방동(永川郡紫陽面新防洞)에 둔김유래(金裕泰)(二六)라는자는금년오월에 대구감옥을 나온후즉시로대구 영천경주의 경북각지를횡행하며 수천원에 달하는현금과귀금속등을 절취하야 유흥하고잇든중 지난이십 이일밤대구서원에게 잡힌바되여 방금범행에대하야 취조를 밧는중에잇다고한다

米價下落으로 三母女自殺

일본긔옥현북긔옥군정천촌(埼玉縣北埼玉郡井泉村)의농민처추곡림조(秋谷林造)의『기누』는미가폭락과불안한이십을념려하든끗헤돌연이정신에이상이생겨아들형제와딸하나의삼남매를모다자긔집우물에던저죽인후자긔도마저빠저죽엇다는데이것은한농촌비극의한『에피소트』이다

問題多端하든 晋州勞農會館

소송기각으로원고참패 晋州支廳에서言渡

【晋州】 루보한바와가터삼년이라는 긴세월을두고 일반사회의이목을쓰을든 진주 로농회관소송사건은 지난이십일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釜山地方法院晋州支廳)에서판결언도가잇섯는바 소송긔각으로 원고박기수는패소를 당하엿다하고 회원들은 새로운활긔를띄웟다하며동회관은 풍마우세의수간초옥이나마 강게무량한인상을 준다한다

紅樓夢 (一八一)

洌雲 譯　夕影 畫

瀟湘館春困發幽情 (一)

소홍의이말에 가혜는 깨닷지못하게 마음이감동돼서 어찌할수업시 눈가가붉어졋다 그러나 까닭업시 울기도아니돼서 그저억지로웃으면서

『언니말에 올소마는 어저께 태렌님이 래일에는 방을어떠케수리를하고 옷을어떠케짓는다고말하면서 몃백년이나 지나갈것같이하든때!』

소홍은 이말을듯고 탱소하면서 무슨말을하랴고하다가 아즉 머리도올리지안흔 작은재집아이가 손에 몃가지봄따기와 종의두장을들고들어와서

『이본보기들을 언니더러 그리라고합듸다』

하며 소홍의앞에내던지고 몸을돌려 곳 달아나매 소홍이 밧글향하야

『그래누구의것이란말이냐 말도다끝나기전에 곳달아나느냐 누가 만두를쪄노코 너를기다린다든? 그래식을까바퍽정이돼서ㅅ레니?』

한즉 그작은계집아이는 창밧게서다만

『긔언니(긔하)의것이라오』

한마듸대답을하고 그만 깡충깡충가버렷다 소홍은 곳곰이나서 그본보기를 한구석에동댕이치고 설합을열고 붓을찻는데 한참찾아도 모두모지라진붓뿐이매

『그저께 새붓한자루는 어되다가두엇든가? 어째서생각이안나나?……』

혼자말하며 한동안정신을차려생각하다가 웃으면서

『올치 그저께저녁에 앵아가 가저갓군』

하고 가혜더러

『네가내대신좀찾아오렴으나』

하니 가혜는

화언니가 나더러상자를가저오라고 기다리니까 언니가찾으려가오』

『그가짜장 너를기다릴것같으면 네가 입때까지여긔안자서 입만놀리고 잇섯겟니 내가 너더러 그것을찾아오라고 아니햇드라면 그도너를 기다리지안핫겟지? 예기못된년가트니!』

하고자긔가곳이홍원에서나와서 그길로 보차의집으로 갓다막 심방정언덕에 이르럿슬때에보옥의유모 이마마가 저쪽으로부터 오는것을보앗다 소홍은 서서 웃으면서

『이내내 노인네가 어되로가셧다가 어째서 이리로좇아오시오』

이마마는 손바닥을 한번딱치면서

『너좀들어보아라 쓸때업시 펌물으니 또 그무슨 운(雲)인지 우(雨)인지 눈에돌어서 나더러 그릇을녀오라고 줄라대는구나 만일 래일이라도 대방에서 아시게나되면 그래또 조처안흘것이아니냐?』

소홍은 옷으면서

『노인네는 태렌님의말을 참으로고지듯고 부르러가셧습되까?』

『그러면 어떠케하니?』

『그사람이 만일 혹빠올아는사람같으면 자긔가아니들어와야올치요』

『그도 천치가아닌담에야 어째서아니들오겟니?』

『그가긔왕 들어오게 되거든 노인별넝은 그이와같이오시지마셔요 잇다가 그이혼자헤매게 내버려두면그가어떠케하나좀보게요』

『난들 어되그런 한가한저를이 잇니 그이하고 가티단이게! 불과시 그에게 말하나 해두엇다가 잇다가 조끄만계집아이거나혹놈은할멈을보내서 그를다리고 들어오게하면그만이지』

이마마는 이러케말하고 지팽이를짚고 저리로갓다 소홍은 그이야기를듣고 그자리에서서 멀거니한참 생각하노라고 붓도찾으려가지 안핫다 얼마아니하야 작은계집아이하나가 뛰어오더니 소홍이가 거긔서잇는것을보고

『홍언니 여긔서 무엇을하오?』

하매소홍이 고개를 들어서보니그는 작은종아이추아(墜兒)이엇다소홍이

『어되로가느냐?』

물으니추아는

『나더러운 둘재쉬방님을다리고오라고한다오』

하고뛰어간다 소홍이 막봉요교(蜂腰橋)문앞에 이르럿슬때에저쪽에서 추아가 가운을다리고온다 가운은걸어오면서소홍을 흘끈보는데 소홍이도추아하고 말하는체하면서 또한눈이 가운에게 흘끈갓다 그리다가 네눈이공교히 딱맛우칫다소홍는 깨닷지못하게얼골이붉어지며 몸을돌려 형무원으로갓다

005544

本社主催文字普及班活動成績

九百班員奉仕的努力!
萬五百人文字解得
全解者만八千五百五十五人
前回보다一躍三倍好成績

무맹퇴치(文盲退治)라 하는것은 어제오늘에 룰니는 말이 아니며 또 그필요에 대하야 절규하여온것도 벌서 오래전부터 잇든 일이나 실제로 대규모적(大規模的) 또는 가장 효과적(效果的)인 방법과 계획으로 실행하야 큰 성과를 어더본 일은 아즉도 업섯다 본사에서는 삼사년전부터 이계획을 세워 곳 실행에 착수코저 하엿스나 모든 준비와 기타관계에 늘여의치 못하고 일구이구년 즉 작년하긔부터 겨오 그첫거름을 옴겨노앗다 그리하야 금년하긔까시 불과 이회의 활동을 개시한데 불과하나 우리들의 상상하든 이상으로 사업이 진전되여 반도문맹타파운동에 선편(先鞭)을 잡게되는 동시에 최대규모의 이계획의 파연 최대분량의 수확을 엇게된것을 깁버한다 두해동안 차한 경험은 금후 이운동에 귀중한 토대가 되여 더욱더욱 이운동에 긔초를 공고히 하며 계획을 늚히고 또 구체화(具體化)하야 활발히 이운동에 맹진케 하려는것이매 우리의 힘이 밋치는데까지 만일의 공헌이라도 밧치랴 한다 독자여! 우리문자보급반운동에 구백명청년학생이 금년하긔 씨는 더위를 무릅쓰고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하여왓는가를 보라 그들의 영웅적 활약(英雄的 活躍)은 놀나지 안흘수 업고 그들의 희생적 노력은 경의를 표하지 안흘수 업다 본사의 미미한 이주최가 그들로 말미암아 빗내게 된것은 주최측으로서 삼가 사의를 표하는바이거니와 우리겨레된 자는 누구나 그들에게 경의를 드리지 안흘수 업다

班員申請者二千名
『원본』配付九萬部
興味잇는文字普及運動의最大試驗
朝鮮初有의最大規模的인文盲打破
奉仕努力의功果如何

본사주최 문자보급운동(文字普及運動)은 금년으로써 제이회를 맛게되엿다 작년에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문자보급반원(文字普及班員)의 지원자가 사백여명에 달하고 기내에 구십일인은 량호한 성적으로 반도문맹퇴치에 노력하엿다 작년은 문자보급반원의 문맹퇴치운동으로서 첫거름인것만큼 여러가지로 미비한 점이 만하엿지 지원반원수도 비교적 적엇고 그 어든바 수확도 이천팔백사십구인에 불과하엿스나 금년에 드러한 『원본』으로부터 여러가지 개량한 점이 잇고 그계획도 색리를 집히 박어보라 노력한 까닭에 문자보급반원의 신청일인 칠월십이일부터 시내 각학교 남녀학생을 비롯하야 먼지방학교와 단체에서 신청이 답지하는중 칠월이십일경까지는 일천오백명에 달하고 그뒤에도 신청자가 만하서 약 이천명가량의 신청자를 보게되엿다 본사에서 제작한 『한글원본』은 구만부를 인쇄하야 이천명 문자보급반원에게 모다 노나버리고 현재잔존부수(殘存部數)는 저오보관용(保管用) 밧게 남지 안흔것을 보아 배부된 수효가 엄청나는것을 알수잇다 이천반원이 구만한글원본을 가지고 파연얼마만한 활약이 잇섯나? 이것은 자못 이운동에 전도를 전망(展望)하는데 흥미잇는 과재가 아니면 아니될것이다

曠古의大洪水로
班員苦心其極
其外에苦熱貧窮干涉疾病
모다가 그들의活動을妨害
千障萬碍을무릅쓰고

문자보급반원중(文字普及班員)의 교부를 바든 사람은 약 이천명이나 되엿스나 어려운 실제에 다달너서는 마음과 갓지 못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엿다 이소식은 본지 학예면에 련재되엿든 반원통신을 보아도 그내정을 알수 잇는것이겟거니와 참담한 홍수 피해와 백도(百度)승강하는 뜨거운 더위와 넘치게 간섭하는 지방경찰과 학생의 신분으로 핍절(乏絶)한 물질력과 또 과로로 어든 질병 등은 그들의 활동을 쓰님업시 방해하고 말엇다 그리하야 반원중의 교부를 바든 사람중 약 반수는 불행이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엇스며 그가운데 구백명 반원만이 모든 마장을 익여 나가면서 우준히 활동을 계속하엿다 만일금년 녀름에 천조선을 음답한 미증유의 대홍수가 업섯슬것 가트면 우리 반원들의 활동성적은 얼마나 량호하엿슬것인가 삼천의 생령을 죽인 대홍수중에서도 오히려 일만

오백륙십칠명(一萬五百六十七名)의 문맹을 건지게 된것은 다 못감격할 이외에는 아모것도 업다

未報告者數一萬
解得者實數二萬
報告안홈은不可
追後로報告하라

반원의 문자해독자 보고자 총수(文字解得者報告者總數)는 벌항 보고와 가티 일만오백륙십칠인이거니와 녀학생반과 단체반원(團體班員)의 태반은 『일반활약이지 심문사에 보고는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태도로서 보고서를 보내지 안코 또 기타 개인반원도 보고하면 상이나 탈 낸것처럼 안되엿다』 하는 생각으로 역시 보고서를 보내지 안흔이가 조사한결과 볼날만큼 만흔것을 발견하엿는데 발표의 형식상 그 미보고 문자해독자들 가산할수가 업슴으로 부득이 일고서도 해독자에 대한 추정총수는 일반인인바 보고해독자 총수와 아울너 이만명가량 될것은 분명히 다고상상된다

盛大를豫期하는
入賞者受賞式
一般來賓도多數參會할터
詳細는追後로發表

본사에서는 금년 하긔에 모든 마장을 돌파하고 봉사적으로 분투 노력한 문자보급반원 입상자에게 수상식(授賞式)을 거행코저 방금 준비중인대 시일과 장소는 아즉 확정치 안엇스나 대개 십일월중순경에 거행할 예정인바 당일은 수상할 문자보급반원이외에 일반래빈의 초청도 잇슬터이라 한다

一等首位全浩俊君은
昨年記錄을突破
昨年最高記錄은一百三十八人
全君의지은記錄은二百九人
李東淑氏는一等三位

작년에 권희옥(全希玉)군은 일백삼십팔인을 문자해독케한 놀날만한 성적으로 작년일등 삼인중 최고긔록을 지엇는데 금년일등 수상자중에는 북청(北靑)에 전호준(全浩俊)군이 이백구인을 문자해독케하야 경이적 긔록을 지어 작년긔록을 칠십구인의 거리로써 돌파하고 말엇다 그리고 작년긔록은 이등의 제이위인 대구고보(大邱高普)의 서만달(徐萬達)군에 이른바 비로소 작년에 비하면 반원활동의 성적이 크게 차이잇는곳을 볼수잇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번 입상자중의 경이(驚異)라 할사실은 리동숙(李東淑)양으로 대표하는 불교녀자청년회원의 백필적 노력이다 그는 일백구십인의 문맹을 깨우쳐 작년최고긔록인 이백삼십인보다 다륙십명으로 긔록을 돌파하야 남성의 노력을 확실히 능가하게된 것이다 그리고 정해은(鄭海恩) 양의 사십륙인 최명화(崔明化) 양의 사십삼인도 전년에 볼수업는 긔록이 잇다 또 래년녀름에는 이보다도 더 량호한 성적을 예상하는것인즉 이 문자보급운동은 참으로 그 전도가 축복된다 할것이다

四十六校學生이
班員되어活動
養正·中東、培材、徽新이最多
明、法大學生부터小學生까지
女學校는進明梨花崇實

반원중에는 대학생을 비롯하야 소학생까지 참가되엿는바 이제 그들의 교적을 렬거하면 다음과 가트며 학교별반원의 비률을 보면 시내 양정(養正) 중동(中東)량고보를 비롯하야 배재(培材) 경신(儆新)이 그다음 바 참가교수는 총수사십륙교에 달하야 십삼도 방방곡곡에는 본사 문자보급반의 활동이 미초지 안흔곳이 업게되엿다

學校	人數
養正高普	一三
中東高普	一三
培材高普	一二
儆新學校	一二
中央高普	七
徽文高普	七
京城實業專修	七
中央靑年學館	七
普成高普	六
進明女高	五
梨花女校	五
大邱高普	五
苦學堂	四
京城電氣	四
協成實業	三
普成專門	二
南大門商業	二
裡里農校	二
第一高普	二
長老敎神學校	一
延禧專門	一
靈岩鵬林校	一
開城新里普校	一
江界公高校	一
京城工業	一

平壤師範 京城法政 汗浦幼稚 長淵明新學校 松都高普 麗水水産 大邱公高 大邱商業 崇實女子 崇實學校 龍井大成中學 平壤崇仁商業 京城高豫 金泉金陵學院 法政大學 明治大學 中江鎭養正幼稚 京畿商業 京都附洋中學 第二高普

1930 文字解得者
總數壹萬五百六十七名
班員總數900
昨年總數二千八百四十九人

(圖表) 半鮮者 全鮮者 總數
京畿 七七二 總數三〇三二 二二六〇
咸南 二三九 總數二四四六 二二〇九
慶北 一六六 八六九五七
全南 一七五 八一九
慶南 一五六 三七六
平北 六〇 一四二五
黃海 一六五 一二九四
全北 二四四一〇
忠南 一三六 一二九五
江原 九七 一二九
咸北 一〇四
忠北 七〇 一〇六
平南 一〇三

文字普及班成績
圖表說明
第一位는京畿
第二位는咸南

일만오백륙십칠인의 문자해득자중 그가운대는 반해자(半解者) 반해자는 일천구백팔십이인으로서 전해자(全解者)는 팔천오백팔십오인 총수에 십분지이가못되며 전해자는 일천구백팔십이인으로서 총수에 십분지팔이 훨신 넘는다 그도별통계(道別統計)를 몰진대 경긔도(京畿道) 삼천삼십이인이 최고위를 점하엿고 작년에 최고위를 점하든 함남(咸南)이 이천사백사십륙인으로 제이위에 떠러젓스며 경북(慶北)이 제삼위요 전북(全北)은 전해자(全解者)사백십인으로서 황해(黃海)의 전해자 이백구십삼인보다 우월하는것이나 반해자수가 황해도에 멀리 미츠지 못하는 고로 칠위에서 팔위로 떠러지고 말엇다 평남은 최하위로서 겨우 일백이인에 불과하는 형편이니 래년에는 몽도 학생의 영웅적 활약이 잇기를 크게 바란다

入賞者氏名

等級	氏名	人數	所屬
一等	全浩俊	二〇九	北靑
同	李炳杓	二〇三	同
同	李東淑(女班)	一九〇	佛女靑
同	南應孫	一七一	高豫
同	朴煥奎	一六一	儆新
同	李揆震	一五〇	楊州
同	全熙鶴	一四七	普高
同	柳景熙	一四四	中東
同	張尙浩	一四一	儆新
二等	崔鳳樹	一二九	京法政
同	蘇久永	一一七	培材
同	金錫泰	一一五	養正
同	方亨錬	一一二	北靑
同	魚大慶	一〇五	中東
同	李松雲	一〇四	同
同	洪承甲	一〇二	南大門商
同	金璨錫	一〇二	平原
同	金四龍	九七	南大門商
同	金秉禹	九七	京電氣
同	李柱三	九七	中東
同	尹聖德	九六	儆新
同	房琪伍	九二	苦學
同	朴榮錫	八一	大邱
同	孫桔湘	八〇	中央基靑
同	吳炳昊	八〇	安城日新
同	鄭海恩(女班)	四六	金浦
同	崔明化(女班)	四三	明新
同	吉公珠(女班)	四二	平壤崇義

三等 五十名

氏名	人數	所屬
李元鎬	七六	中央高普
李商吉	七五	普商
金成默	七五	儆新
全裕協	七〇	中央基靑
李海廷	七〇	京城電氣
白建植	六九	京畿商業
尹明淑	六八	儆新
嚴點得	六六	培材高普
李昌鎬	六四	養正高普
金彰斗	六四	咸興
金承濬	六二	利原
申健雨	六二	苦學
閔鳳鎬	六二	信川
朱熹基	六〇	中東高普
崔元宰	六〇	實業專修
柳寅弼	六〇	養正高普
崔龍雲	六〇	利川
韓永駿	五九	洪原
朴永鎬	五六	普高
林炳斗	五四	同
申鉉守	五四	大邱高普
李元鎬	五三	大邱師範
趙重健	五二	江原
金德在	五二	中央基靑
張鉉奎	五一	京實專修
劉龜洛	五〇	普成專門
金浩元	五〇	大成中學
崔德根	五〇	徽文高普
趙仁鎬	五〇	金浦
李鍾守	五〇	靈岩鵬林
千珍煥	五〇	養正高普
柳寅哲	四九	靈岩
文衛鉉	四九	靈岩
韓相鎬	四九	中央基靑
趙秉好	四八	徽文高普

(以下明日續載)

解得者年齡別統計

年齡	人數
五歲	九人
六歲	廿五人
七歲	百十三人
八歲	四百四十八人
九歲	六百六十二人
十歲	九百六十人
十一歲	八百八十九人
十二歲	千九十五人
十三歲	九百九十九人
十四歲	千十八人
十五歲	八百九十四人
十六歲	五百六十四人
十七歲	四百九十二人
十八歲	三百五十人
十九歲	二百九十六人
廿歲	二百三十八人
廿一歲	百三十三人
廿二歲	百二人
廿三歲	九十二人
廿四歲	五十五人
廿五歲	九十三人
廿六歲	二十八人
廿七歲	三十三人
廿八歲	四十人
廿九歲	十七人
卅歲	三十四人
卅一歲	十二人
卅二歲	十五人
卅三歲	六人
卅四歲	六人
卅五歲	七人
卅六歲	十一人
卅七歲	四人
卅八歲	一人
卅九歲	二人
四十歲	五人
四十二歲	三人
四十三歲	二人
四十四歲	二人
四十五歲	一人
四十六歲	二人
四十七歲	一人
四十八歲	一人
四十九歲	一人
五十歲	一人

解得者年令別 圖表說明
第一位는十二歲
第二位는十四歲

일면일교제(一面一校制)가 아즉 실시 안된 조선에 잇서서 실학한 학령아동으로는 맹지옥에서 방황하게 된는 이문자해독자의 년령별도표(年令別圖表)로 봄지라도 팔세로부터 십칠세까지 이유년과 소년이 그최고률을 점령하고잇는것을 볼수잇다 그가운데는 학교에 공석(空席)이 잇다할지라도 수학할 능력이 업서서 취학치 못하는 아동이 대부분일 것으로 일면일교제가 실현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큰 소용이 업다 그들은 본사 문자보급반원의 열렬한 노력을 얼마나 감사하엿슬가? 심지어 오십세 되는 로인까지도 오십년과거의 문맹심세를 기위하야 배호고저 한것은 또한 흥미잇는일이라 할것이다

各地文字普及班(續上)

(梨泰院) (議政府) (新浦) (淸津) (端興) (海州) (利原) (淸津新岩) (扶安) (安國洞) (江陵)

부인

영리한아희는 조사하기쉽다
신경체질이되는까닭

죽은아이는 똑똑햇다는 말은누구나흔히 듯는말입니다만 죽은아이가 똑똑하다는 것보다도죽게되는아이들은 대개 머리가좃습니다 바라서똑똑한 아이는죽는다고 반대로 말할수도잇는것입니다만 좀은똑똑하다고 다죽을것은아닙니다

대체로 빨리죽는아이는 신경질입니다 잘아모것도 모르고 천진하게 아이가 신경질이되는제일첫원인은 어릴때에 너머작란가음가티 들복는 까닭입니다 자고잇는 아이를함부로 이르킨다든지 ○○데업는 강한자극을 주게되는 까닭입니다

다소 신경질이되엇슬때에는기저기를잘밧귀주고 더위와추위에 따라의복을정당히 갈어입히고 낫에라도 너머밝은곳에 내보내지 안토록하면자연히 낫습니다만 그대로두어너살을 지내면 신경질은신체발육에도 해로워 얼골이창백하며키만크고 살이붓지 안흐며밤에도 숙면을못합니다

또신경질인 아이는 음식에가리는것이만어 북어가튼 것이나조와하고 영양이만흔 고기나생선또는 채소를실혀하게 됩니다또세끼 밥보다도 간식을더조화합니다 이러케 간식을조화하는것을 이호증(異好症)이라고합니다

것떠러질때에 숫이나 재흙은흙가튼것을 조화하는것도 일종이호증으로

이런 때는그조화하는것을보이지만안흐면 낫습니다 이러케편식을 계속하면 나종에는 무서운결과를이르킵니다 귀여운생각에 아이의원하는대로 편식을식히는것은 몸을기를만한 영양을 골고두취하지못하게됨으로 신경질인 아이의체질은 점점더 심하게맨들어병에대한 저항력이 약하여감기에걸리기쉬우며 또전염병에도 약합니다 뿐만아니라 결핵이라고하는 무서운병도 이러한체질을가진 아이에게 침범하기쉽습니다 한번이러케되면 약가튼것으로는 좀처럼 치료하기어렵습니다 가장조흔요법으로는 종용하고도 산수가조흔곳으로 건거를식히는것이 가장 유효합니다

어떠 한방법으로는지 신경질은속히치료하지안흐면 중농하고나 전문학교에드러갈때쯤되여 갑작이 죽어버리는일이잇습니다

가정의학

【문】 十二指腸虫과貧血과如何한關係가有하오며또한十二指腸虫이發生하면身體에如何한影響이有하오며特히大便에엇더한故障이업습니까? 仔細히紙上으로發表하기를伏望합니다

【답】 十二指腸虫이發生한境遇에는그虫이腸內에서사람의營養分과血分을吸收함으로뭇사람은營養不足과貧血症에陷하야頭痛과消化不良症이生하며大便에는別故障은업스나大便을檢査하는時에는그속에十二指腸虫卵을發見할수잇습니다

【문】 小生은二十二歲된靑年이온데四五年前부터生殖器神經衰弱으로就業이不能하고將來精神修養을하며服藥하엿스나効驗은커녕漸大漸進하야食窮한家勢이라入院치못하오니自家療法과適當한藥名을敎示하옵소서

【답】 그래도別수업시첫재精神을休養하며神經에對한醫藥을服用하시는同時에女子와의交接을絶禁하십시요

【문】 淋疾慢性에對하와賣藥中第一特効를가진藥이요어느것이實地로特効한지를모르겟삽나다廣告를보면모다特効라고하오니어느것을먹어야참으로特効가有할는지未知하와問議하옵는것이오니患者가第一만히効力본것을紹介하야주시기를伏望하옵니다

【답】 賣藥을사서服用하시려면「노산」이라는獨逸製藥을사십시요그러나淋疾을根治하시려면賣藥만가지고는어려우니皮膚專門醫에게治療를밧으십시요

晩秋風景(二)
A生

날이추어지니까 거리에괴물들이출몰하기시작한다 그야쌀거벗고환도를차도케멋이지만추어서입은옷이라면 부대쏘각을두르든지이불을뒤집어쓰고 단녀도아모상관업는건데 그래도옷매무시를꼿치는것도 남볼상에조흘라는것이아닐가 괴생의외투, 모던껄의케프, 알부랑자의호의투——왜그런지가튼 옷이면서 괴상하게해입는축이잇다 케뗀에는아는 체해도모두가못난탓

지금부터 살결을부드럽게
틀때에는크림으로씻고 맛사지를하는것이제일이다

아츰저녁 쌀쌀한바람과 함께살결이터질때가 옵니다 ㅂ롱살결이 튼다고하나그결과로 보아트는원인이 여러가지잇습니다

첫재 로몰건강할때죽부장이 낫부든지 이병이잇다든지위가잇든지 변비증이 또는빈대하여부드럽고 윤택잇는 피부를바랄수업습니다

다음담배를 먹는분은 역시 피부가 거치른것을줍니다 또영양부량으로 혈행이 조치못하고 긔름이 업슬때도 역시조흔살결을가질수 업는것임으로 우선조흔살결을 보존하려면 몬저이와가튼 근본적원인을 잘살혀조리거죽으로 크림을 바르고약품을써도 완전한효과를

볼수 업는것입니다바로 지금과가튼환절기로 에트는것은 물론간단한 커치로도곳나을수가 잇습니다 또우에말한여러가지 원인으로 터질때에도안으로 치료하는 동시에박그로도 커치를하면 훨신속히건강한살결이됩니다 얼굴이 틀때에는한때 더운물이나 찬물에세수를 하지말고 크림ㅣ으로씻습니다 즉콜드크림ㅣ가튼것을 얼골에골고로 발르고 가ㅣ제로잘씨서버립니다 만약 크림ㅣ으로근적거리는 긔운이잇스면 약솜에화장수를 뭇처한번 씨스면좃습니다 다음하로에 한번식자기전가튼때에 맛사ㅣ지를 합니다 즉별도 어려울것도업시 얼골을골고로 손고락으로 문질르는것입니다

물론 몬저화장수로얼골의때를잘씻슨후에 또목욕을 한후에 특별히 터지기쉬움으로 역시해야합니다

크림ㅣ으로 씻고더운 수건을대여쎄구녕을 잘벌리게 합니다골드크림ㅣ을 바를때는 반드시손고락에조곰씩처서눈얼골중앙으로부터량쪽으로펴지게하든지혹은아래로오로부터우로올려발러야합니다 이러케하지 안흐면근육을 거츨게함으로 도리혀얼골에 잔주름살이집니다 물론얼골을만질때는손고락을부드럽게하야합니다 가ㅣ제로 크림으로씨슬때도 역시아래로부터나중앙으로부터 씨슨후 찬수건으로누릅니다 얼골을씻드시 문질레서는안됩니다 다음조흔 크림을조곰발러둡니다

만약 넘우만히발렷슬때는손바닥으로뚜들깁니다 맛사ㅣ지는 피부의혈행을좃케하며 표피(表皮)를 눈새롭게하고볼힘을잘식힘으로화장법중에는 제일효과잇는것 입니다특히살결이트는때는효과가현

童謠

이사군
金耕岸

낫모를사람들이 울핫술명이
이삿짐지고 이끌실은 갑니다
어린애들은 짐실은 지게우에다
곱다랏케 둥ㅣ실 지고갑니다

二

먼길에 다리압흔 이사군들이
집햇이 질고집고 길을갑니다
무서운 누덕이짐 머리에니고
강아지를 안고서 지나감니다

팔려가는 송아지
睦源玉

닷새장을 보고서 도라가는길
송아지가 울면서 쓸려감니다
수만흔 장ㅅ군들이 흐터진길에
송아지 한마리가 팔려감니다

◇

음메음메 아이구난 가기실허요
엄마품을 떠나기는 정말실허요
아모리 안가안가 떼둣쓰것만
가여웁게 송아지는 쓸려감니다

황소
金小岡

건넌집 황소는 맘조흔황소
죽도록 힘들려서 콩날려주고
까칠까칠 콩깍지만 어더먹지요
건넌집 황소는 미련한황소
뚜들겨 마저가며 논갈어주고
씰깃씰깃 집만먹고 조화하지요

시골길
宋昌一

가을날 시골길을 것노라면은
벳둑이 발압헤 쌍충뛰고요
쓰르람이 쓰르르르 숨에울어요

◇

가을날 시골길을 것노라면은
일흠모를 풀벌레는 합창회열고
가랑닙은 뻐울뻐울 마중나와요

라듸오 (廿九日)

▲午前一〇時三〇分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一〇時四五分料理『장김치』日用品價格正午時報及뉴ㅣ쓰

▲午後〇時二〇分라듸오學校(二)修身道話▲二時一五分經濟講座 ▲三時四五分 뉴ㅣ쓰官廳公示事項▲五時四〇分라듸오體操職業紹介事項今晩順序發表 ▲六時〇分 童話劇(大阪)▲六時三〇分語學講座金井鎭▲七時〇分뉴ㅣ쓰官廳公示事項明日順序發表▲七時二五分紀念講演(東京)▲八時〇分映畫이야기▲八時三〇分漫談(東京)大辻司郞▲九時〇分室內樂(東京)바이오링피아노重奏▲九時三〇分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時報▲九時四五分西道雜歌一、愁心歌二、船歌三、寧邊歌四、坐女唱李錦玉

東方의愛人 (一)
沈薰 作
安碩柱 畵

◇ 一 맛가부터 ◇

봉천(奉天)서 밤아홉시에정정을당하야떠난 목단강행렬차는 그이튼날 동이틀무렵에 안동현(安東縣) 정거장안으로 굴러들엇다

국경을 직히는 정사복경관육혈포를 걸어메인 헌병이며세관(稅關)의 관리들은 커다란버러지들 또떠먹요려고 달려드는 주렴개아미떼처럼「플래트、폼」에 짓처느려진 객차의마디마디로 흐터저 이야기를벌린다 차ㅅ속이 부펴서 새우잠들을자다가 마지못해서 눈을부비고일어난 승객들은 집이며가방등속을 나려노코 쌍그리검사를 맛기시작한다

일등이나이등에 버틔고안진량반사람들압헤가서는 공손히모사를벗고

「대단히 수고로우시겟습니다만은 가지신물건을 잠시보여줍시요」

하고 천분을노코나서 수박것할기로 가방뚜정만 떠들어보는체하든 세관리는 삼등차ㅅ간으로 들어스면서부터는 졸지에 그태도가 엄숙(?)해지며 죽은사람의 물건다르듯 나치는대로 발ㅅ길로 굴려가며엄히노코 케처노코하다가 두세명씩이나 무어라고 귀뜸을가능뒤에서 붓터다니는 형사기만하면 그승객의짐는따로 쓰더내여『세멘트』바닥에 넉마전을 벌려노코 속『사쓰』까지낫낫치들추어 보든것이엇다

『당배는 몃갑이나삿는데 또이고는 무오시냐?』는

볼멘소리 한마듸에 닷자곳자 구룽이를 쥐여박히고나서는 입슐리ㅣ버리는 바지커고리도잇고 찡인의 패물전에서 사서감춘 돌두치패물이 허리춤에서 발려나서

『거저 잘못됏쇠다 그레ㅣ도케모르고 한노릇이라서……』

하고는 그나마 배앗길가보아 부들부들떠는 수건쓴 북도의녀인네도잇다

와부는것을보면 초조하고분한마음을 진정하려고 남몰래힘을드리고잇는눈치다

이십분이나되는 정거시간이 거의 다된뒤에야 그형년에게도집검사를 맛는 차례가돌아왓다

그는잠잣고 손가방을 나려서 세관리압헤 열어보엿다 그속에는 세수하는제구와 편지조희며 그밧게는 백지로싸고또싸고한인삼(人蔘)몃근이 들엇슬뿐이다

빼마즘 호각소리가나며 긔차박귀가 밋그러지기를 시작하엿다 세관리는 그형년이피우든 궐련갑우에다가 도장을찍어서 어룽명스럽게 내여던지고는돌처서서 급히나가려다 말고차ㅅ간박게서 방금교대(交代)가되여뒤를밟아 오르는 이동정찰대형사의 엽구리를 찔으며

『아이쓰와 닌소ㅣ가도ㅣ모ㅇ야시이조』

(저자의 생김생김이 엇재수상스럽다) 하고군소리처럼중얼거리고나서 그형년의 등덜미에다가 얄구진시선(視線)을쐬어어죄주고는 허겁지겁 뛰어나렷다

殺人的穀價暴落과 各地農民의慘境

星火가튼 債金督促에 豊年을도로稱怨

【華川】 금년은 파연 풍년으로 강원도화천지방(江原道華川地方)에도 유사이래(有史以來) 처음보는 대풍작이라한다 그러나 추수긔를당한오날에 말못되는곡가폭락으로 인심은 극도로 흉흉하야 모히는곳마다 별수업시 죽는다고야단들인데 풍년을 구실로 몀벼드는 채귀들은조금도 사정이업시 별별수단으로채무자 빈농들의기름을짜내고잇는터이며 채귀의독촉은 성화가튼때 곡가는날이갈사록 참락할뿐이니 농민에게잇서서는 풍년이 도로혀원수라하야 압날의배곱흘것을탄식하고잇는가련한정경은 참아볼수업는 현상이라하겟다

苦痛을자아내는 今年農作의登豊 公課金負擔이問題

公課金督促과 高敞農民의困境 돈을구할도리가업다

【高敞】 전북고창지방(全北高敞地方)에도 경제공황으로곡가가나날이 폭락되어 일반농가의참상이 목불인견이라함은 두차보도한바어니와미가폭락의원인은 경제공황이 혹심한이때당국에서는 호세(戶稅)를 징수하라고비상한 독려를 함이라는바요즈음은 갑작이 농회비(農會…

酒價不下問題

穀價는暴落이나 酒價만은暴騰 逆轉하는農村經濟

金海酒價減下를 農聯에서運動 농촌경제에불당함으로

三年前에徵收코 又復督促狀發付 영흥군면에서

一年間지은農作 水稅로全部被奪 수확전부를조합창고에적취 文幕水組作人의困境

端川普新校運命 여러가지난관을겪고

平北鐵山米價

農民運動觀會

木材굴리다가 小兒를轢殺해

大豆運搬車 少女를重傷

不正煙草取締에 南原地方騷然 고문에못이겨서 허위공범을불어

高原炭鑛探炭 영흥광에서발헌

根源地面도넘은

憶岐面長을排斥 부정사건을理由로 面民들의非難藉藉

嶺東嶺西間 新道路를計劃 總工費十萬圓으로 강릉에서정선에새로

同仁水組費 償還期를延期 삼십년간갚기로 三十年間갚기로

吉惠線鐵道促進 陳情經過報告會 지난이십사일정각에개최

遂寧留學生會 發會式 이십오일에

永興學校大運動會

債鬼들의差押 江陵서萬四千件

【江陵】 경제력으로금전직하적으로 대파증을일으키고 잇는현하정세 에잇서서더욱목하 금박한농촌 공황이극심한 이때에농작의 화근으로몰려드는 채귀(債鬼)들은 시기를노치지 아니할라고 그활동이맹렬하야 추수가되기전에 립도(立稻)를 차압하는등 구재(舊債)까지 독촉하는등 여러가지로독촉이 자심하다는바 이제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제출된 가차압 지불명령등독촉건수가 금월까지 총건수가 일만사천여건이라는바 최근에일으러서는 하로에도 수십건이나제출되는현상이라한다

秋收마당에서 破産宣告難免

【安邊】 함남안변(咸南安邊)의농형은 금년특히 희유의풍작으로 백곡의수확은 대체로일이할이상의 증산을보게되어 일반농가에서는 환희를 마지안튼중돌연곡가가 금전폭락되여 무준히계속됨으로 수심에 우름으로 방방곡곡에서 『곡가 폭락은 죽우리농민에 파산선고이다 이살림을 엇지할가』하는애끗는소리는날이가고달이갈수록 안변천지에여지업시 사뭇치며 일극적장면을연출하게되는터이라한다

支拂命令執行狀 每日百三十餘通 농민을파산식히는통첩 泗川郵所取扱件數

【泗川】 경남사천지방의농촌참상은 이미 두차보도한바어니와 수년 전긔억만하여도 엄중의여지업는 참혹한 흉년으로이중삼중나는 …

支拂命令狀과 差押通知雪飛

順天酒價減下코저 小賣業者同盟 무리한폭리를그냥둘수업다고

楊州地主懇談

【楊州】 양주군농회(楊州郡農會) 주최인지주간담회(地主懇談會)는제난 십구일에 미금면(渼金面)화도(和道) 동남부각면(南部各面)은금곡공립보통학교(金谷公普校)에서개최되고시둔(柴屯)주내(州內)동북부각면은 이십이일 정오부터 의정부공회당(議政府公會堂)에서개최되엿

密陽靑盟常務會 【密陽】

경남밀양청년동맹(慶南密陽靑年同盟)에서는지난십칠일오후세시경에 본회관에서 집행위원장박정수(執行委員長朴庚守)군의사회로상무집행위원회를열고다음과가튼 사항을 토의하엿다고한다

一、慶南道少聯의件
一、少盟支部禁止對策의件
一、組織、敎務問題의件
一、勞夜十週年紀式의件

●永山夜學盛旺 【永山】 영산면례청년회에서 야학을 개시한다고 별항보도한바어니와 지난이십이일 하오구시에 동례배당(禮拜堂)에서김병이사회로개학식을 거행하엿다는바 사방으로몰녀오는남녀학생는사십여명에달하여 대성황을 일우엇다는데교수선생은 여하하다고 한다

李九鳩 金致恒 朴碩欽 金寬奎

二、小作權의存續期間
現在一般에行하는바와如히地主로서隨時頻繁히小作人을變更함에는小作人의生活安定及農事改良을防害하는것인則小作人이何等背信的行爲가無한以上에는小作人을變更치말것

三、小作料의運搬賃
小作料의運搬賃은納入場所가二里以上이면二里까지만小作人이負擔할것